

韓國 大學圖書館의 書誌·主題 情報 活動

—서울 所在校를 中心으로—

金 丙 柱*

〈目 次〉

- | | |
|------------------------|---------------------|
| I. 緒 言 | V. 主題書誌奉仕의 現況과 그 對策 |
| II. 研究의 目的, 對象과 方法 | VI. 書誌活動 電算化에 대한 意見 |
| III. 大學圖書館에서의 書誌活動의 本質 | VII. 結 言 |
| IV. 冊子目錄·書誌의 現況과 問題點 | |

I. 緒 言

圖書館이라는 機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自館이 所藏하고 있던 間에, 資料나 情報 그 自體를 必要한 利用者에게 提供하여 주고, 또 그 利用을 促進하도록 努力하는데 그 存在價値가 있다고 하겠다.

일찌기 印度의 Ranganathan 이 ‘圖書館學의 다섯 法則’에서 든 ① Books are for use, ② Every reader his/her book, ③ Every book its reader, ④ Save the time of the reader, ⑤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¹⁾ 등은 이러한 圖書館의 目的·機能 그리고 活動의 方向을 가장 간결하게 表現하고 있다 하겠다.

情報의 洪水時代는 지금 現在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問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겪어야 할 것 같다. 情報의 洪水 속에서 헤매고 있는 利用者, 願하는 情報를 손쉽게 얻을 수 없는 利用者, 너무 쌓이고 쌓여 주책할 수 없을만큼 많은 情報資料들 늘어나는 利用者と 資料로 인하여 터질것만 같은 圖

* 祥明女子師範大學 專任講師

(1) S. R. Ranganathan, *The Five Law of Library Science* (London: Blunt and Sons, 1957), p. 9.

書館들, 이와 같은 문제들을 解決하려고 研究하는 일이 圖書館學의 課題가 아닌가 생각한다.

外國에서 行하여진 여러가지 研究들은 그만 두고라도, 우리나라의 圖書館에서는 위에 든 문제들을 어떻게 解決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解決하려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일도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은 大學圖書館이라고 例外일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II. 研究의 目的·對象과 方法

이 研究는 위에서 든 圖書館의 問題解決의 方法과 앞으로의 方向을 우리나라 圖書館의 奉仕活動面에서 우선 把握하려는 意圖에서 시작하였다. 大學圖書館의 奉仕活動 역시 그 領域이 너무나 넓은 까닭에, 範圍를 좁혀 그 中에서도 書誌活動만으로 限定하여 調査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알아본 大學圖書館의 書誌奉仕活動은 어디까지나 問題解決을 위한 現況의 把握과 그 方向의 傾向을 알아봄으로서 보다 나은 未來를 위한 問題提示에 지나지 않는다. 이 問題提示의 실마리를 잡는 것이 研究의 目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이 研究의 對象은 서울特別市內에 所在하고 있는 大學圖書館中, 그 藏書數가 1萬冊 以上の 圖書館이다. 《한국도서관통계 1979》에 의하면, 해당되는 大學圖書館數는 國公立이 7個館, 私立이 35個館으로 合計 42個館이나 된다.⁽²⁾

研究方法으로는 附錄 2에 보인 바와 같은 ‘설문지’를 보내어 回收하여 集計하는 質問紙法을 使用하였다. (質問한 內容은 매우 많았으나, 이 研究에 해당되는 部分만 附錄에 수록하였다.) 설문지는 42個館中에서 軍教育機關을 除外하고 39個館에만 보냈으며, 그 中에서도 回信이 있는 곳은 35個館이었다. 回信이 없는 4個館은 한국체육대학·삼육대학·웅진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

(2) 한국도서관통계 1979.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9) pp. 29~43.

교 의과대학의 도서관 들이었으며, 3次에 걸친 간청에도 不拘하고 回信이 없었으므로 集計의 對象에서는 除外하였다. 全體의 回答率은 89.7%나 되며, 回答率의 數를 보면 아래 表 1과 같다.

表 1. 설문지 回答 集計表

	總 館 數	보 낸 數	回 答 數	回 答 率
國 公 立	7	5	4	80.0%
私 立	35	34	31	91.1%
計	42	39	35	89.7%

時間關係로 설문지에 回答한 圖書館中에서 7個館은 直接 訪問하여 補完調查를 하였으며, 2個館은 電話로 補完質問을 行하였다.

Ⅲ. 大學圖書館에서의 書誌活動의 本質

調査結果의 分析에 앞서, 大學圖書館에서의 書誌活動의 本質에 대하여 살펴볼까 생각한다.

大學圖書館이란 Tauber 가 말한대로 大學本然의 使命이라 할 수 있는 ① 知識과 思想의 保存, ② 教育, ③ 研究, ④ 出版, ⑤ 公開奉仕를 實現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은 그 奉仕의 對象을 學生·教授·研究員·職員, 그리고 나아가서는 可能하면 一般 大衆에게까지도 擴張하여야만 되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³⁾

이러한 使命을 達成하고, 奉仕를 擴張하려면 圖書館의 利用을 增大하도록 努力하여야만 되는데, 그 方便을 Wilson 과 Tanber 는 그들의 共著書에서 ① 資料의 蒐集·組織·保存, ② 直接援助에 의한 提供, ③ 書誌·參考奉仕에 의한 出版資料에의 協力 등을 들고 있으며, 특히 세번째의 方便에서는 綜合目錄이나 書誌적인 援助가 中心이라고 말하고 있다.⁽⁴⁾

(3) Louis Round Wilson and Maurice F. 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p. 15.

(4) 上揭書, p. 25.

4 도서관학논집

한편 英國의 圖書館協會에서 펴낸 職務分析에서 말한 것을 보면, 圖書館에서 利用者에게 올바른 書誌의인 援助를 주려면, “藏書目錄·一覽表·書誌의 物理的인 形成”과 “對內的 生産” 그리고 “圖書·資料에 關한 情報의 配布”가 行하여져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⁵⁾

以上에서 든 두가지의 見解만 보아도 짐작하듯이, 圖書館에서 올바른 書誌 奉仕를 하려면, 所藏하고 있는 圖書·雜誌 및 그 밖의 資料에 대하여 그 所藏 分에 대한 目錄의 完備와 함께, 自己圖書館에 있어서의 所藏 與否와는 關係 없이, 利用者가 必要한 資料나 情報를 配布하는 것이 圖書館의 使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印度의 圖書館學者인 Kumar도 圖書館에서의 書誌奉仕를 크게 二分하여, Library Catalog와 Bibliography라고 말한 것⁽⁶⁾을 보면, 앞에서 말한 바와도 一致하고 있는 면이 있다.

Library Catalog는 우리나라 말로는 圖書館目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圖書의 Catalog나 雜誌의 List나 보다 “目錄”이라고 부르고, 있다. 目錄의 形態는 歷史的으로 보아 여러가지가 있었다 하겠으나, 오늘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自館에서 作成하여 카드 函에다 배열하여 둔 카드 目錄과 이를 다시 自館에서 編輯하여 刊行한 冊子目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前者의 카드目錄이 加除의 容易라는 長點이 있는 反面에 檢索의 難澁, 保存場所의 차지가 심한 것, 카드량의 增加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가지 問題의 發生 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한편 刊行된 冊子目錄은 이러한 短點 등을 解消하여 주고는 있으나, 그 生産費의 過多는 많은 圖書館으로 하여금 그 刊行을 주저하게 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이 問題들과 같은 短點들 까지도 電算機의 活用으로 말끔히 씻어지고 있다.

(5) Library Association,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Duties*. 2nd ed.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74), pp. 55-56.

(6) Girja Kumar and Krishan Kumar, *Bibliography*. (New Delhi: Vikas Publishing, 1976) p. 6.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國·漢·日文의 入出力에 관한 問題가 아직 약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알파베트에 의한 電算機利用 冊子目錄의 發刊은 研究團地의 여러 圖書館에 의한 綜合目錄이나 서울大學圖書館의 藏書目錄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成功하고 있다.

한편 아직 電算化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圖書館에서, 카드의 寫眞複製와 옵세트印刷 등의 低廉한 方法을 쓴다면, 혹은 打字나 孔版의 옵세트印刷을 通한 冊子目錄의 發刊은 바람직한 電算化 以前의 措置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方法들은 打字등사나 筆耕등사와 같은 前近代의 手工業的 方式으로부터 脫皮라는 면에서도 매우 경하할 일이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冊子目錄은 그 用途가 매우 多樣하다. 冊子目錄을 配布받은 個人이나 機關 그리고 圖書館과 같은 곳의 利用者가 쉽게 利用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으며, 나아가서는 新着速報와 같은 CA 刊行物까지 걸드린다면 그 最新性도 充分하게 維持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圖書館이나 利用者의 側面에서 볼 때에 훌륭한 圖書選定の 道具가 될 수 있다는 것을 Carpenter는 밝히고 있다.⁽⁷⁾

앞에 든 Kumar 말고도, Weisman은 그의 著書에서, 圖書館에 있어서의 書誌奉仕는 利用者에게 最大의 奉仕가 될 수 있다⁽⁸⁾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Wilson은 그의 著書에서, 圖書館에서 最新情報周知奉仕를 제대로 行하려면, ① 受入目錄, ② 雜誌記事一覽表, ③ 抄錄誌, ④ 書誌調查誌(Bibliographic Surveys), ⑤ 非書誌的 情報調查誌, ⑥ 要求된 書誌·調査, ⑦ 選定的 情報配布(SDI), ⑧ 雜誌供覽, ⑨ Data Sheets, ⑩ 情報센터, ⑪ 非形公式的 對話를 行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⁹⁾

이와 같은 活動을 보면 書誌活動이 最新情報周知奉仕의 核心을 이루고 있

(7) Charles A. Carpenter, Jr., "The Lamont Catalog as a Guide to Book Selection." in Billy R. Wilkinson, ed. *Reader in Undergraduate Libraries*. (Englewood, Colo.: Information Handling Services, 1978) pp. 71~74.

(8) Herman M. Weisman, *Information Systems, Services, and Centers*. (New York: Becker and Hayes, 1972)

(9) Thomas Wilson and James Stephenson,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2nd. ed. (Hamden, Conn.: Archon), pp. 26~31.

음을 알 수 있다. 書誌奉仕活動에 있어서는 그 活動方法도 重要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제대로 施行할 수 있는 ① 專門司書의 有無, ② 所藏하는 主題資料의 充分度, ③ 그 資料를 活用할 수 있는 二次資料의 充分度, ④ 文獻案內書 등의 有無 등이 그 活動의 達成與否를 決定짓는 關鍵이 될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自館에서 作成한 CA 關係 刊行物의 有無, 奉仕施行의 與否 등은 利用者에 대한 圖書館奉仕의 有無까지도 決定하게 된다. 그리고 自館에서의 所藏資料의 有無는 他館에 대한 資料依存度와 매우 正比例할 것으로 생각된다. 資料의 形態別이나 主題別이나 간에 全國的 規模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綜合目錄은 이러한 相互依存度를 쉽게 解決할 수 있는 道具가 되겠다. “주고 받는다(Give and take)”는 行動은 人間 원래의 美德이었을뿐만 아니라 圖書館活動에 있어서도 當然한 歸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색한 圖書館人이 훌륭한 奉仕者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綜合目錄에의 參加와 그 備置가 利用者를 위한 積極的인 奉仕의 한 方便임은 말할 것도 없다. 圖書館奉仕의 一般的인 原理가 이러할진대 大學圖書館이라고 例外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든 Wilson 과 Tauber 의 學著作에서 言及한 것 말고도, Gelfand 도 “大學圖書館은 書誌와 目錄의 編纂에 있어 서로 協力할 수 있으며, 이를 教授陣과 大學院生에게 配布할 수 있고, 規模가 큰 Group 로 協同에 參加하고 있는 圖書館의 綜合目錄을 만들 수 있으며, 雜誌·新聞·貴重書 등의 目錄을 카드目錄에서 冊子目錄에 이르기까지 多樣하게 만들어 쓸 수 있다”(10)고 말한 바 있다. 이와같이 圖書館은 自館만으로는 아닌 여러 圖書館과의 協同한 方式으로든 간에, 여러가지의 書誌나 所藏目錄을 編纂·刊行하여 利用者로 하여금 보다 迅速하고 容易하게 資料나 情報를 接近할 수 있도록하는데 書誌奉仕活動의 本質이 있다고 하겠다.

(10) M. A. Gelfand,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Paris: Unesco, 1971) p.96

IV. 冊子目錄·書誌의 發刊 現況과 그 問題點

앞에서 든 大學圖書館에서의 書誌奉仕活動의 本質에서 考察한 바에 立脚하여,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書誌活動을 把握하는 일도 必要하다고 보겠다. 그런 뜻에서 우선 서울市內에 所在하고 있는 여러 綜合大學校와 單科大學에서 이미 發刊된 冊子目錄과 書誌類의 現況을 把握하여 보았다. 설문지의 問項 19에서 解答한 答과 既存書誌에 의하여 一次 調査한 것을 實物과 對照 確認하여 補完한 結果로서 把握하여 보았다. 解答한 全 35個의 서울市內 大學圖書館中 15個館만이 冊子目錄과 冊子書誌를 發刊하였다고 答하였으며, 나머지 20個館은 無答이며 刊行하지 않았다. 이들 15個館에서 刊行한 冊子目錄·書誌類의 總數를 보면 모두 92種이나 된다. 이들을 刊行한 種數順으로 보면 아래 表 2와 같았으며, 各 大學圖書館別로 刊行한 冊子目錄과 書誌의 一覽은 附錄 1에 붙여 두었다.

表 2. 刊行種數別 圖書館一覽

種 數	圖 書 館 名
1種	서울女大·梨花女大·漢陽大
2種	明知大·西江大·世宗大
3種	慶熙大·韓國外國語大
4種	東國大·淑明女大
5種	建國大
6種	成均館大
10種	延世大
15種	高麗大
33種	서울大
92種	合 計

이들을 다시 類型別로 集計하여보면 아래와 같다.

가. 所藏(藏書)目録	52	(2) 校內刊行物	1
(1) 圖書	46	(3) 教授著作	2
ㄱ. 東·西洋書合冊	1	(4) 主題別	1
ㄴ. 東洋書	5	라. 書誌類	21
ㄷ. 西洋書	6	(1) 書誌	6
ㄹ. 古書(漢籍)	13	ㄱ. 主題別	2
ㅁ. 貴重書	1	ㄴ. 學位論文	1
ㅂ. 文庫別	15	ㄷ. 教授著作	2
ㅅ. 別置圖書	2	ㄹ. 其他(解題未收)	1
ㅇ. 寄託圖書	3	(2) 索引	9
(2) 雜誌	4	ㄱ. 雜誌記事	7
ㄱ. 國內·外合冊	2	1) 國內	6
ㄴ. 外國	2	2) 外國	1
(3) 古文書	1	ㄴ. 校內刊行物	2
ㄱ. 寫眞集	1	(3) 抄錄	(2)
(4) 마이크로 필름	1	(4) 圖書解題	6
나. 綜合目録	2	ㄱ. 古書	3
(1) 雜誌	2	ㄴ. 古地圖	1
다. 展示目録	16	ㄷ. 參考圖書	2
(1) 古書·貴重書	12		

이에 따르면 所藏(藏書)目録은 文庫別目録과 古書(漢籍)目録이 많이 刊行되었다. 文庫別目録 속에는 漢籍만 著錄한 目録이 7種이나 있으므로, 事實上 古書(漢籍)目録은 20種이 刊行된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國學振興과 資料의 稀貴性을 고려하여 刊行하려 한데 原因이 있지않나 생각된다. 反面에 非印刷 資料目録의 發刊이 매우 低調하다. 그 原因으로서 高麗大學校의 경우와 같이 視聽覺資料를 主로 다루고 있는 部署가 圖書館과 獨立되어 存在하고 있다는 데 있지않는가도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그 利用의 活潑性이 低調하므로 目録

의 發刊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綜合目錄은 서울大에서 國立大學의 雜誌目錄을 2次 發刊한 것만 集計한 것으로, 新村地域 3個大學과 私立大全國綜合分은 集計에 包含하지 않아서 나온 數字이다. 이 綜合目錄 역시 研究團地나 韓國醫學圖書館協議會의 경우만큼도 活潑하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다. 展示目錄의 경우에는 古書나 貴重書를 展示한 目錄이 으뜸으로 많다.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展示의 對象으로서의 選好度로 古書나 貴重書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大學이라는 特性 때문인지 校內刊行物과 教授著作의 展示目錄도 모두 3種이나 刊行되었다. 以外로 主題別資料의 展示目錄은 外國語大學에서 1種만 刊行된데 지나지 않고 있다. 大學內의 많은 各學科와의 協力에 의한 展示會 開催는 各 主題別情報資料의 利用을 促進한다는 면에서도 권장하여야 할 圖書館의 活動임에도 不拘하고, 위의 1件을 除外하고는 전혀 施圖되지 않았다는 것을 實證하고 있다.

書誌類의 刊行이 豫想하였던대로 매우 低調하다. CA 繼續刊行物의 集計가 除外된데다가, 各 大學圖書館에서의 이 方面의 活動이 活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特히 主題別書誌의 發刊이 2種에 不過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이 方面의 活動에 매우 시사적인 面을 지적한다고 보겠다. 大學圖書館에서 SDI 奉仕를 云云하면서도 主題書誌編纂에는 미쳐 힘에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IT에서 施圖하고 있는 Library Pathfinder와 같은 主題書誌活動의 電算化가 國內에서 이루어진다면, 主題書誌活動의 活性化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도 생각해 본다.

全體의으로 보아 冊子目錄과 書誌類의 發刊에 있어 古書(漢籍)에 攄重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刊行物을 여지껏 刊行한 刊行年度別로 보면, 1959年 以前이 아주 적은데 比하여 1960年代 以後로는 增加된 傾向이 보인다. 아래 表 3에서는 每 10年마다 묶어 集計한 것으로서 類型別·各年度別 集計와 解釋은 省略하였다.

表 3. 期間內 行種數 集計

期 間	種 數	%
1959 이전	5種	5.4%
1960~1969	27	29.3%
1970~1979	53	57.6%
1980~1981	7	7.6%
計	92	100%

이들을 다시 刊行物의 크기別로 나누어 보면, 아래 表 4와 같다. 대체로 四六倍判의 크기로 刊行한 것이 많으며, 菊判은 주로 展示目錄에, 菊倍判은 雜誌記事索引에 많다. 其他 1種은 橫菊倍判으로서 서울대의 古文書集眞이 해당한다. 冊子目錄이나 書誌類는 參考圖書로서 開架公開하는 圖書館을 많이 볼 수 있는 바, 四六倍判과 같은 大型冊子の 發刊은 內容의 收錄量이라는 問主以外에도 開架公開에 그 原因이 있지않나도 생각해본다.

表 4. 判 型 別 集 計

判 型	種 數	%
菊 判	15種	16.3%
四 六 倍 判	60種	65.2%
菊 倍 判	14種	15.2%
其 他	1種	1.0%
未 詳(?)	2種	2.1%

印刷方式은 冊子目錄과 書誌의 刊行에 있어 豫算上으로 人件費 다음의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同時에 編纂作業의 人力과 日程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點이 아닌가 생각한다. 印刷方式別로 集計한 結果를 보면 아래 表 5와 같다.

表 5. 印刷方式別集計

印 刷 方 式	種 數	印 刷 方 式	種 數
筆 耕 등 사	15	孔 版 음 세 트	1
打 字 등 사	3	寫 植 음 세 트	3

孔 版 등 사	1	? 음 세 트	5
複 寫	2	活 版	34
제 룩 스 음 세 트	8	電 算 機 出 力	1
打 字 音 세 트	13	未 詳(?)	4

이를 보면,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서는 活版印刷方式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1960年代 初期까지에 많이 使用되었던 筆耕등사方式은 複製技術 특히 음세트印刷方式의 發達로 因하여 손쉽게 이 方式을 活用하게 된 것 같다. Jackson이 Orne의 編著에 寄稿한 글에서 “寫眞複製와 電算機가 印刷目錄 發刊에 技術的인 큰 變革을 가져왔다”(11)고 말한 바 있는데, 음세트印刷 方式으로 轉換하였고 또 電算機出力에 의한 方式의 採擇으로 바뀐 것을 보면, Jackson의 말을 證明하듯하다. 음세트 印刷方式은 若干 더 細分하였는데 合하면 30種이나 되어 活版印刷方式의 數字를 뒤따르고 있다. 이로 보아 앞으로라도 이 음세트印刷方式은 增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981年度에 이르러 大學圖書館에서는 電算機出力의 冊子目錄이 刊行되었다. 서울大學校에서 施圖한 일에 앞서 專門圖書館 그中 研究團地 圖書館에서도 出刊된 바 있지만, MARC의 形式에 의하여 카드형을 그대로 再現한 서울大學校의 快舉는 大學圖書館에서의 作業이 보다 더 記述書誌面에 努力이 큰 것을 立證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電算化冊子目錄에 대하여는 Dolby에 의하여 자세한 研究가 이루어졌지만, (12) Cartwright에 의하면 이 電算化目錄이야말로 製作과 檢索에 있어 가장 融通性이 높다고 한다. (13) 이러한 目錄의 電算化등이 韓國에서는 國漢日文의 使用 등으로 全 大學圖書館에의 施行에 아직 많은 難題가 있고 또 時日이 要하겠지만, 우선 로마字 使用 文獻란에라도 適用하여 活用하면 매우 有用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經費가 많이 든다. ② 人力이 不足하다. ③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 등의

(11) William V. Jackson, "Library Resources and Bibliography," in Jerrold Orne, ed. *Research Librarianship*. (New York: Bowker, 1971) p.77.

(12) J.L. Dolby, et al., *Computerized Library Catalogs* (Cambridge: M. I. T. Press, 1969)

(13) Kelley L. Cartwright, "Automated production of Book Catalogs," in Stephen R. Salmon, ed. *Library Automat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9), p.77.

특히 歐美各國에서 刊行한 圖書나 論題의 出力에는 各國에서 開發한 Data Base의 導入과 그 活用도 하나의 方便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活用은 專門司書의 人件費를 包含한 여러가지 費用節減과 남는 人力의 直接奉仕部門으로의 轉用으로 招來하는 여러가지 向上을 考慮하면 한번 施圖해 볼만한 일 이 아닌가 생각한다. 本稿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全國的規模에 가까운 OCLC와 같은 (大學)圖書館間 綜合目錄의 形成이 이루어진다면 資料의 共同活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以上에서는 刊行된 冊子目錄과 書誌類를 中心으로 다루어 본 것이지만, 이러한 刊行物を 刊行하지 않는 理由를 따로히 面談을 通하여 알아 보았던 바, 答이 나왔다. 특히 ①의 경우에는 그 經費로 책 한권이라도 더 사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豫算이나 人力의 뒷받침만 된다면 刊行할 豫定이며, 또 準備中이라는 곳이 많았다.

冊子目錄과 書誌類의 編纂部署를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藏書目錄~整理部署

雜誌目錄~雜誌部署

展示目錄~閱覽部署 혹은 參考部署

書誌·索引·解題~위와 같으나, 但 索引은 雜誌部署도 있다.

그리고 刊行된 目錄·書誌類의 配布方式은 서울大學校의 《法律文獻索引》의 一例를 除外하고는 대체로 모두가 寄贈 및 交換으로 配布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결하여 刊行에 대한 豫算事情도 알아 보았으나, 여기에서는 省略한다.

V. 主題書誌奉仕의 現況과 그 對策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主題書誌活動의 重要함은 앞의 III에서 살펴보았거니와 冊子로 發刊한 主題別書誌가 意外로 적었던 것도 역시 앞의 IV에서 알게

되었다. 冊子書誌의 發刊이 低調한 대신에 各 圖書館에서 書誌奉仕를 實際로 어떻게 行하고 있는가를 설문지를 통하여 9個 部門에 걸쳐 알아 보았다. 아래에서는 이를 部門別로 알아본다.

1. 主題別 專門司書의 有無

Ayres 와 Hall 에 의하면 主題專門司書의 業務를 ① 圖書의 選擇과 藏書의 維持, ② 分類, ③ 書誌的인 指導, ④ 利用者에 대한 援助와 情報奉仕라고 말하고 있다.⁽¹⁴⁾ 그가 ③과④에서 든 것과 같이 大學圖書館의 書誌奉仕에 있어서 主題背景이 있는 專門司書가 그 奉仕活動의 關鍵을 가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서 主題書誌奉仕를 제대로 遂行할 수 있는 主題專門司書가 얼마나 되는가를 把握할 必要가 있다. 그래서 主題專門司書를 “司書資格所持者로서 特定 專攻의 學士·碩士·博士學位所有者”로 定하고, 이를 調査하여 보았다. 설문지에 應答한 35個館中 21個館은 無答이였으며, 14個館에서는 아래와 같은 答이 있었다. 앞의 數字는 主題專門司書의 人員數이고 ()속의 數字는 全體 職員數이다.

가톨릭大神學部	1(8)	西江大	6(22)
가톨릭大醫學部	1(9)	서울大	9(158)
감리교神學大	1(4)	世宗大	2(9)
慶熙大	7(20)	淑明女大	2(12)
光云工大	2(7)	中央大	5(7)
檀國大	1(26)	韓神大	1(3)
祥明女子師大	1(7)	弘益大	2(15)

14個館의 全體職員 317名中에서 圖書館學 以外의 主題專攻學位의 所有者가 41名임이 알려졌다. 이는 全體의 12.9%에 해당한다. 그 中 서울대가 158名中 9名으로 5.6%라는 낮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除外하고 보면,

(14) F. H. Ayres and J. Hall, *SCONUL: 大學圖書館に於ける情報サービス*, (東京: 文部省, 1975) pp. 1~2.

表 6. 專攻別 學位所有者 集計

전 공	학 사	석 사	박 사	計	전 공	학 사	석 사	박 사	計
철 학	1			1	능 학	5			5
신 학		2	1	3	경 영 학	3	1		4
정 치 학		1		1	국 문 학	2			2
경 제 학	2			2	일 본 문 학	1			1
행 정 학	1	3		4	영 문 학	4	1		5
교 육 학	1	2		3	불 문 학	2			2
민 속 학		1		1	역 사 학	1	2		3
물 리 학	1			1	지 터 학	1			1
생 물 학	1			1					
의 학			1	1	計	26	13	2	41

13個館 全體 159名 中 主題專門學位所有者는 32名이 있어 20.1%, 約 1/5로 나타났다.

이들 41名の 專攻分野를 DDC 順으로 學位別로 集計하여 보면 表 6과 같다. 學位로는 學士가 26名으로 全體의 63.4%였으며, 博士學位所有者로 2名이나 있었다.

主題分野別로 볼때 農學과 英文學이 各 5名, 行政學과 經營學이 各 4名으로 豫想外로 農學專攻이 많았다. 全般的으로 볼때 科學技術系가 8名으로 全體의 約 1/5에 不過하였으며, 全體職員의 約 2.2%밖에 되지 않았다.

2. 主題別 情報奉仕의 方法

主題書誌奉仕活動에 있어서 그 樣相은 多種多色하다. 奉仕活動에 있어서 人的物的 要素와 網組織도 排除할 수 없으므로 함께 알아 보았다. 35個 圖書館中에서 解答한 곳은 26個館이었으며, 全척 答을 하지 아니한 곳도 9個館이나 있었다. 應答한 項目數로 본 館數는 아래 表 7과 같다.

表 7. 項目 應答數別 集計

4 個項目	4 個館	建國大·西江大·서울大·梨花女大
3 個 "	5	
2 個 "	7	
1 個 "	8	
1 個記入	2	東國大·總神大
計	26	

이를 다시 項目別로 答한 館數를 보면 아래와 같다.

- (ㄱ) 主題別 專門司書를 두고 도와주고 있다. 4個館
- (ㄴ) 主題別 閱覽室을 두고 利用하게 한다. 4個館
- (ㄷ) 主題別 參考業務를 行하고 있다. 12個館
- (ㄹ) 主題別 書誌를 만들어 두고 있다. 2個館
- (ㄴ) 主題別 新着資料速報를 發刊하고 있다. 5個館
- (ㄷ) 主題別 雜誌記事索引을 만들어 두고 있다. 7個館
- (ㄷ) 主題別 學術論文索引을 만들어 두고 있다. 5個館
- (ㅇ) 主題別 雜誌目次를 複寫·提供한다. 9個館
- (ㄷ) On-line 施設로 主題別 檢索을 하고 있다. 없음
- (ㄷ) 主題專門家와 連絡할 수 있도록 準備하여 두고 있다. 2個館
- (ㄷ) 主題別專門機關과 協力하고 있다. 4個館
- (ㄷ) 其他 ① 主題別 카드目錄단 제시하고 있다. 1個館
- ② 參考司書가 일임하고 있다. 1個館

主題別 參考業務를 行하고 있는 圖書館이 12個館으로 가장 많았으며, 目次 提供, 記事索引作成, 速報發刊의 順으로 되어 있다. 其中 On-line 檢索을 行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3. 所藏 主題資料의 充分度

所藏 主題別 資料의 充分度는 主題書誌奉仕의 要求度와 매우 相關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補充的으로 알아 보았다. 여기에서 나온 答은 司書의 見

解이며 利用者로부터 直接 얻은 答은 아니다. 35個 圖書館中 國民大·檀國大·延世大의 3個館을 除外한 32個館에서 얻은 答은 아래와 같다.

(ㄱ) 利用者目的의 充分한 達成與否에 대한 생각

예	2	西江大·成均館大
아니오	29	
보통	1	祥明女師大
無答	3	

(ㄴ) 利用者の 満足與否에 대한 생각

예	5	가톨릭大醫學·光云工大·西江大·서울大· 成均館大
아니오	24	
보통	2	外國語大·祥明女師大
無答	4	카톨릭大神學 追加

(ㄷ) 利用者에 대한 可能한 努力의 最善 與否에 대한 생각

예	32
아니오	無
無答	3

4. 二次情報資料의 充分度

主題書誌情報奉仕에 있어서 自館에 所藏하고 있는 書誌類들은 奉仕의 成功 與否를 決定하는 要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알아보았다. 35個 圖書館中에서 檀國大와 德成女大는 全部 應答을 하지 않았으므로 33個館에서만 答을 얻었다. 그中 全部 肯定을 한 곳은 梨花女大의 1個館 뿐이었으며, 全部 否定이 15個館이나 있었다. 45.4%에 해당하는 圖書館이 全的 不足을 느끼고 있었다. 資料의 形態別로 얻은 答은 아래 表 8과 같다.

表 8. 資料形態別 充分度 集計

資 料 別	네	아 니 오	보 통	無 答
書 誌	10	19	1	3
索引類(單行本)	11	18	1	3
索引誌(잡지)	9	20	1	3
抄錄類(單行本)	5	23	—	5
抄錄類(잡지)	6	23	—	4
綜合目錄	11	18	1	3
文獻案内書	4	24	1	4
參考圖書解題	6	21	1	5

이 充分度は 司書의 意見만을 물은 것으로, 否定的 答數에는 全部否定館까지 包圍되어 있는 數이다. 이 數字에서 全部肯定과 全部 否定館을 除外한다면, 書誌·索引類·索引誌·綜合目錄 등은 肯定쪽의 數가 더 높다. 또 無答은 否定쪽이 아닌가 생각되나 알 수 없다.

5. CA 繼續刊行物의 現況

CA 刊行物은 圖書館에서 入手한 資料를 利用者에게 재빨리 짧은 時間안에 알려주기 위한 媒介體라 할 수 있다. Cowley의 編著에 있는 글에 의하면, 이러한 刊行物은 圖書館의 弘報活動에 있어서도 重要的 資料로 보고 있으며 또 刊行物의 類型도 多様하나 刊行時差가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市內 大學圖書館 35個館中에서 CA 刊行物이 續繼刊行되고 있는 곳은 9個館 뿐이며, 1個館은 中斷하였고, 나머지 25個館에서는 刊行하고 있지 않다. 刊行하고 있는 9個館中, 高麗大·世宗大의 2個館만 2種을 刊行하고 있으며 나머지 7個館은 各 1種씩 刊行하고 있다. 이들 刊行物의 明細는 아래와 같다.

大學名	高 麗 大	檀 國 大	서 울 大	成均館大
刊行物名	新著圖書月報	잡지목차안내	新著圖書案内	도서관소식
創刊年月	1979. 9.	1974	1981	1975

刊行頻度	月刊	隨時	隔月刊	月刊	月刊
繼續性여부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配列順位	정구기호순	수일순	분류순	정구기호순	구입부서별
編纂部署	정리과	잡지실	정리실	참고서지과	수서계
配布對象	교원전부	교원희망별	교수·학과	교수·학과	교수·학과
其他	음세트	복사	타자음세트	음세트 도서관소식포함	孔版

大學名	世宗大	梨花女大	外國語大	漢陽大	弘益大	
刊行物名	신학도서목록	學術雜誌目錄	도서관소식	도서관안내	신학도서목록	신자자료원보
創刊年月	1978	1975		1974	1975. 1.	71.3.
刊行頻度	年刊	年刊	年10回	季刊	季刊	半年間
繼續性여부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配列順位	DC순	분류순	DC순	분류순	분류순	분류순
編纂部署	정리실	수서실	수서과	사서과	열람과	정리실
配布對象	교수·학과	교수·학과	校內	교수	校內	校內
其他	孔版	打字	카드음세트	孔版	孔版	孔版

이 CA 刊行物들을 보면, 그 類型으로는 新著圖書目錄·雜誌目錄·雜誌記事索引·目次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目次 一覽表는 보이지 않는다. 그 名稱으로는 “도서관소식”이 3個館이나 있었으며, 1970年代에 와서 創刊된 것이 많았다. 刊行頻度로는 月刊이 3種이며, 週刊과 같이 頻度가 더 잦은 것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季刊 以上の 頻度가 더딘 刊行物이 많았다. 위의 明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淑明女大의 2種을 除外한 모든 刊行物은 지금도 繼續 刊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 刊行物의 배열의 順位를 보면 請求記號順과 分類順이 大部分이었으며, 編輯을 擔當하고 있는 部署 역시 多樣한 것으로 나타났다. 刊行物의 配布對象은 主로 校內 教授와 學科가 많았다. 그리고 印刷方式으로는 孔版등자와 음세트印刷方式이 大部分이었다. 다만 目次案內의 경우 複寫를 行하는 곳이 있었다.

이러한 CA 刊行物이 35個館中 1/4에 不過하는 9個館만이 現在도 行하고 있다는 것은 圖書館에 있어서의 最新情報周知奉仕의 不在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貧弱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大學圖書館에서 展示板活用, 新着資料回覽

등 그밖의 方法으로 CA 刊行物의 不刊을 補完하는 奉仕를 行하고 있는지는 確認하지 않았지만, 規模가 큰 大學일수록 CA 刊行物의 需要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相應하는 적절한 奉仕方案이 攄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SDI 奉仕의 施行與否

Wilson 이 말한대로 SDI 奉仕는 重要한 情報配布方式의 하나라 하겠다.⁽¹⁵⁾ 情報源 自體의 直接的인 提供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利用者의 關心 主題를 登錄하여 놓고 書誌情報를 먼저 알려주는 일이 매우 必要하다. 大學에 있어서 教授別로 이미 알려진 專攻分野를 中心으로 書誌를 一次的으로 提供하는 奉仕도 바람직 하지만, 當面하거나 豫定中인 研究課題에 알맞는 SDI 奉仕가 더욱 바람직하다. 歐美나 日本에서는 이러한 SDI 奉仕를 電算機로 處理하는 것이 一般化되었다고 듣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圖書館에까지 電算機가 一般化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下에서는 部分的으로나마 手作業的 方法에 의한 SDI 奉仕가 不可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市內 大學圖書館 35個館中 SDI 奉仕를 하고 있는 圖書館은 祥明女子師大·서울大醫學分館·誠信女大·中央大 등 4個館이며, 施行하고 있지 않은 곳이 23個館, 無答이 8個館으로 集計되었다. 施行하고 있다는 4個館의 實際에 대하여는 다음 研究에 미루기로 한다. 서울市內 大學圖書館의 半數 以上이 SDI 奉仕를 實施하고 있지않다는 點은, 大學圖書館奉仕活動에 있어서 “찾기 前에 알려주는 活動”은 全然 行하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證明하고 있다.

圖書館의 다른 業務와도 關連이 있지만, 例를 들어 整理業務의 省力 등 만이라도 이루어 이 方面의 奉仕로 돌릴 수 있다면 全然 不可能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7. 主題別 綜合目錄 作成의 參考與否

綜合目錄이 現在 所藏하고 있는 資料의 所在를 밝혀주는 書誌類임은 이미

(15) 註9同書, pp. 26~31.

여러 研究에서 밝혀진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資料의 類型別, 設立機關別의 여러가지 綜合目錄이 刊行된 일이 있다. 그리고 主題別로는 醫學·科學技術系의 雜誌綜合目錄도 刊行되었다. 學術情報資料를 가장 많이 所藏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大學圖書館이 全國의 規模의 主題別 綜合目錄에 參與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고도 必要한 일로 생각된다. 綜合目錄이 電算化가 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主題別 綜合目錄은 主題情報의 重要한 書誌의 役割을 담당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러던 서울市內의 大學圖書館의 意見은 어떤가 하면, 35個 圖書館中에서 25個館은 主題別 綜合目錄에의 參加를 贊同하고 있다. 그리고 가톨릭大神學部·慶熙大·同德女大·서울大·成均館大 등 5個館은 不贊을, 國際大·檀國大·延世大·長老會神學大·漢陽大 등 5個館은 無答으로 나타났다.

美國이나 다른 몇몇 國家의 경우와 같이 國家的 次元에서 人的·物的·財政的 支援으로 主題別 綜合目錄이 이루어지고, 또 電算化에 의한 檢索이 可能할 때에 綜合目錄에의 參加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不贊成館의 한 意見에 의하면, 實現의 不可能함과 自己 圖書館 所藏資料의 豊富함을 들고 있으나, 利用者側으로 보아서는 결코 資料가 豊富한 것도 아닌 것이며, 또 實現不可能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8. 主題別 綜合目錄의 備置必要 與否

應答한 35個 大學圖書館中에서 主題別 綜合目錄을 備置할 必要가 있다는 圖書館이 33個館, 無答이 檀國大·延世大 등의 2個館, 不必要한 圖書館이 한 個館도 없다는 것은, 앞의 綜合目錄作成에의 參加與否의 答과 連結시켜 볼때 매우 시사적인 答이 나왔다고 하겠다.

9. 主題別 文獻案內書의 必要與否

일찌기 英國의 Neal은 大學圖書館의 刊行物 中에는 主題別文獻案內書가

꼭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⁶⁾ 또 Taylor가 British Library에 낸 研究報告書에 보면, 英國에서 刊行된 533種의 文獻案内書中 277種이 大學, 163種이 Polytechnics, 50種이 師範大學 合計 490種 즉 92%가 大學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속에는 많은 大學圖書館 刊行物이 들어 있다고 한다.⁽¹⁷⁾ 이를 보면 大學이나 大學圖書館에서는 그 自體의 基本機能인 敎育과 研究를 위한 必須的 基本資料의 하나로서 主題別 文獻案内書를 編纂·刊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直接 生産刊行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多國語資料를 活用하고 있는 마당에 汎世界的인 文獻案内書는 一次的인 書誌資料로 그 必要性이 크다고 하겠다. 요사히는 Units Producing Information Guides라 하는 學課目單位別情報案内書도 冊子나 電算機出力으로 利用이 可能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文獻案内情報의 電算入出力까지도 施圖하여 볼 만한 일이라 하겠다.

서울市內 大學圖書館의 35個館中에서 31個館이 汎世界的 文獻案内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으며, 가톨릭大神學部가 不必要하다고 하였고, 檀國大·德成女大·延世大 등 3個館이 無答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大多數圖書館이 그 必要를 切實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겠다.

Ⅶ. 書誌活動의 電算化에 대한 意見

圖書館業務의 電算化에 대한 研究는 國內外에서 活潑하게 進行되었으며, 또 進行하고 있다. 圖書館에 있어서의 電算化는 收書·貸出·經理·文書와 같은 一般經營管理的 機能에도 必要하고 또 可能하겠지만, 무엇보다도 重要な 것은 書誌的 機能이라 하겠다. 이 書誌的 機能속에는 圖書, 繼續刊行物, 非印刷資料등의 機械可讀目錄과 記錄, 索引과 抄錄 그리고 SDI와 適及調查

(16) K. W. Neal,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Cheshire: The Author, 1971), pp. 96~105.

(17) P. J. Taylor, *Information Guides* (London: British Library, 1978) p. 17.

등이 포함된다.

특히 美國 議會圖書館의 MARC는 實用化의 단계에 이르러 1979년부터 카드目錄을 만들어 배열하는 作業마저도 中斷하였다. 이러한 MARC의 영향으로 英國·日本 그리고 韓國에서 까지도 各種 MARC의 實用化 단계에 이르렀다. 韓國은 國立中央圖書館에서 單行本을 위한 一次的實驗도 完成한 바 있다.

既往에 이루어진 雜誌記事索引·博士學位論文目錄의 電算化와 함께, 韓國 MARC가 全國의인 網組織으로 뻗칠 날도 멀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時點에서, 書誌의 電算化에 관한 意見을 5個問項에 걸쳐 質問하여 보았다.

1. 整理業務電算化의 必要性

應答한 大學圖書館 全 35個館中 해당 圖書館에서의 모든 資料整理業務의 電算化가 必要하다고 한 곳이 23個館, 否定이 9個館, 無答이 3個館이었다. 無答은 德成女大·延世大·韓國外國語大였으며, 否定은 가톨릭大神學部·高麗大·國際大·東國大·西江大·誠信女大·世宗大·韓國神學大·弘益大였다. 이 중에서 1個館에서는 “아직 일르지만 必要하다”고 但書한 곳도 있다. 否定館은 不必要 그 自體보다도 部分的인 必要를 느끼고 있는 곳도 包含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여러 問項의 質問에서 圖書館들이 應答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2. 閱覽用目錄의 電算化方法

圖書館에 所藏하고 있는 全藏書나 資料를 完全 開架制로 하여 利用者에게 直接 接近하여 利用하도록 하기 前에는, 利用者가 一次로 接近할 수 있는 方法은 冊子型이던 카드型이던간에 閱覽用目錄이 아닌가 생각한다. 電算化가 이루어진다면 必然的으로 閱覽用目錄의 電算化가 要求된다. 그런 뜻에서 閱覽用目錄의 電算化方法中에서 ① 目錄카드의 自動配列과 檢索, ② 自動出力에 의한 印刷, ③ 端末裝置上의 展示와 複寫, ④ 冊子目錄의 繼續 發刊, ⑤

其他(記入要望)의 다섯가지 方法을 提示하여 必要한 方法을 表示하도록 하였다.

서울市內 35個 大學圖書館中에서, 無答이 10個館이며, 25個館이 應答하였다. 이中에서 17個館은 1個問項만, 7個館은 2個問項을, 서울大의 1個館은 3個問項에 必要表示를 하였다. 1個 應答館의 應答은 ①만 14個館이고, ③만 3個館이었다. 2個 應答館中 ①과 ②가 4個館, ①과 ③이 2個館, ①과 ④가 1個館이었고, 서울大의 경우는 ①③④에 表示하였다. 이를 綜合하여 重複되더라도 集計하여 보면, ①이 27個館, ②가 4個館, ③이 7個館, ④가 2個館으로 나타났다.

이 結果로 알 수 있는 것은, 司書들은 利用者의 接近方式中 아직도 카드目錄이 가장 좋은 方法임과 카드배열의 번잡함을 가장 싫어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3. 主題檢索·主題目錄의 電算化

利用者들이 目錄을 通하여 圖書館資料에 接近할 때, 接近點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著者名·書名 그리고 主題가 있겠다. 主題接近은 主題名이나 要語 그리고 自然語를 包含한 語彙에 의한 接近과 分類나 類別 등의 記號에 의한 接近을 생각할 수가 있다. 어느 경우이던지 主題로 檢索할 수 있어야 하며, 또 檢索을 위한 主題目錄은 必要하다. 特히 電算化가 이루어진다면 入力方式에 따라 다르겠지만 主題目錄의 出力이나 主題檢索의 方法이 多樣化하여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意味에서 5個 小項目으로 나누어 質問하였다.

술 35個館中 31個館이 應答하였으며, 4個館이 無答이었다. 問項中 ①現在 主題檢索·主題目錄의 電算化를 行하고 있다는 곳은 한곳도 없었으며, ②앞으로 할 計劃이 12個館, ③全혀 計劃이 없다가 18個館으로 가장 많았으며, ④할 必要가 없다는 圖書館도 1個館 있었다. 이를 보면 約 1/3의 圖書館은 與件만 許諾하면 主題檢索이나 主題目錄의 電算化를 施行할 것으로 보인다.

4. 電算化時 主題表示方法

앞의 3에서 言及한 것과 같이 主題檢索을 위한 主題表示方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中에서 ① 分類記號, ② 主題名標目, ③ 書名의 主要語(Key word)의 세가지 代表的 方法을 提示하고, ④ 其他(記入)까지 네개의 小項目으로 나누어 물었다.

全 35個館中 應答이 25個館, 無答이 10個館이며, 應答한 大學圖書館中 ①이 3個館, ②가 14個館 ③이 8個館, ④가 없었다. 이로 보아 大多數의 圖書館은 分類에 의한 主題表示보다 語彙에 의한 主題表示를 더 좋아하며, 語彙中에서도 主題名標目에 의한 檢索에 더 높은 關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보아 主題名標目에 관한 研究가 電算化의 研究와 함께 並行하여야 하겠다.

5. 內容目次分析에 의한 主題檢索 準備與否

單行本의 形式을 띄우고 刊行되는 數많은 資料들이 圖書館藏書로 收書되고 있다. 한 單行本을 構成하고 있는 章節은 대개의 경우 짧은 內容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重要한 情報을 包含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單行本으로 整理(處理)할 때에는 보다 包括的인 主題表示단으로 끝나거나, 적은 數의 主題表示단 하게 되는 경우가 大部分이다. 이러한 資料가 많아지면 질수록 그 資料의 活用을 위한 適切한 檢索手段이 必要하게 된다. 그 한 方便으로 內容目次(차례)까지 主題分析을 行하여 主題表示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方法에 電算樣까지 動員한다면 資料의 活用に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質問을 하였다.

全 35個 大學圖書館中에서 책의 內容目次를 分析하여 主題檢索을 하도록 準備하였나에 대한 물음에 대해 無答이 6個館, 否定이 26個館, 肯定이 成均館大와 梨花女大의 2個館, 準備중인 곳이 中央大 1個館으로 答하고 있다. 後者의 3個館에 대하여는 追跡研究를 行할까 생각한다.

VII. 結 言

以上으로서 서울市內所在 藏書數 1萬冊以上の 大學圖書館中 설문지에 應答한 35個館을 中心으로 書誌·主題情報活動의 現況과 意見을 分析하여 보았다.

大學圖書館이란 大學 本然의 使命을 實現하는데 힘써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利用者에게 自館에 所藏하든·않던간에 資料에 관한 情報(主로 書誌情報)를 提供하여야함을 言及하였다.

所藏하고 있는 資料는 카드目錄 뿐만 아니라 冊子目錄이나 冊子書誌를 通하여 알 수 있음을 들어, 알려진 大學圖書館 刊行의 書誌·目錄類 92種을 分析하였다.

主題書誌奉仕活動에 대해서는 9個項目에 應答된 것을 分析하여 現況을 把握한다음, 그 對策에 대하여 論及하였다.

世界的인 추세가 書誌活動의 電算化에 있음을 감안하여, 韓國 大學圖書館 司書들의 意見을 5個問項에 應答된 것을 綜合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다룬 問題들은 어디까지나 問題提起에 지나지 않으며, 大學圖書館에서도 서울市內所在校의 意見과 現況을 把握·分析한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설문지에서 質問한 全 53個項目中の 一部分만을 集計한데 不過하다.

앞으로 地方大學과 公共圖書館 그리고 專門圖書館까지 包含하여 설문지의 全問項을 集計·分析할까 생각한다. 그리고 本研究와 關連이 깊은 隣近問題까지도 追跡研究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同學의 叱正을 바란다.

參 考 文 獻

- Aboyade, Bimpe. "The Librarian as a Bibliographer." *Unesco Bulletin for Librics*, v. XXV, no. 6, (Nov.-Dec., 1971), pp.344-347.

- Allison, Anne Marie, and Allan, Ann, ed. *OCLC: a National Library Network*. Short Hills, N.J.: Enslow Publishers, 1979.
- 安永柱, 韓國에 있어서 大學圖書館奉仕의 効果에 關한 研究.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65.
- Ayres, F.H., and Hall, J., ed. *SCONUL: 大學圖書館における情報サービス*. 東京 文部省學術國際局, 1975~76. 2冊.
- Booz, Allen & Hamilton, Inc. *Problems in University Library Management*.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70.
- Christian, Roger. *The Electronic Library: Bibliographic Data Bases, 1978-79*. White Plains, N.Y.: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s, 1978.
- "Computers for University Libraries."
Drexel Library Quarterly, v. 4, no. 3-4. (July-Oct., 1968)
- Cowley, John, ed.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the User Approach to Service*. London: Clive Bingley, 1975.
- Dolby, J.L., et al. *Computerized Library Catalogs: their Growth, Cost, and Utility*. Cambridge, Mass.: M.I.T. Press, 1969.
- Farber, Evan Ira, and Wailing, Ruth, ed. *The Academic Libraries: Essays in Honor of Guy R. Lyle*. Metuchen, N.J.: Scarecrow, 1974.
- Fenton, F.H., ed. *Reference Library Staffs*.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62.
- Fleming, T.P., Brodman, Estelle, and Robb, S. "A Continuous Bibliographic Service in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 VIII, no. 3, (July, 1947), pp.322-328.
- Foskett, A.C.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 3rd ed. London: Clive Bingley, 1977.
- Gelfand, M.A.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Paris:Unesco, 1971. (Unesco Manuals for Libraries, 14)
- Graton, Selby U., and Young, Arthur P. "Reference-Bibliographers in the College Librar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 35, no. 1, (Jan., 1974), pp.28-34.
- 한상완.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업무에 있어서 주제전문가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76. (연세대학교 도서관학총서, 제19집)
- 한국도서관협회. 전국도서관 실태조사(상), 서울: 동회, 1971.
- Hines, Theodore C. "Book Catalogs."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

- mation Science*. New York: Marcel Dekker, 1969, v. 2, pp.659—667.
- 岩嶺敏生, 大學圖書館, 東京: 雄山閣, 1976. (日本圖書館學講座, 6).
- Johnson, Edward R., and Mann, Stuart H. *Organization Development for Academic Librarics; an Evaluation of the Management Review and Analysis Program*.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0.
- Johnson, Richart D., ed. *Librarics for Teaching, Libraries for Resecarch; Essays for a Centur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6.
- Josey, E.J., ed. *New Dimensions for Academic Librabry Scrvice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5.
-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大學圖書館の機械化, 東京: 紀伊國屋書店, 1979.
- Kumar, Girja, and Kumar, Krishan. *Bibliography*. New Delhi: Vikas Publishing, 1976.
- Library Associ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Committee.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Duties*. 2nd ed.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74.
- Luker, Jay K. "Library Resources and Bibliographical Control." *College & Research Libries*, v. 40, no. 2, (March, 1979), pp.141—153.
- Lyle, Guy R.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4th ed. New York: Wilson, 1974.
- _____. *President, the Professor, and the College Library* New York: Wilson, 1963.
- McInnis, Raymond G. *New Perspectives for Reference Service in Academic Libraries*. Westfort, Conn.: Greenwood Press, 1978.
- Martin, Susan K., and Butler, Brett, ed. *Library Antomation; the State of the Art II*.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5.
- Metcalf, Keyes D. "University Libraries Face the Future." in *Landmarks of Library Literature 1876—1976*, edited by Dianne J. Ellsworth and Norman D. Steven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6, pp.296—307.
- 文部省. 大學圖書館實態調查結果報告, 昭和50年度, 東京: (同) 1976.
- Montgomery, Edward B., ed. *Foundations of Access to Knowledge*.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1968.
- Neal, K.W.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Cheshire: The Author, 1971.
- Needham, C.D. *Organizing Knowledge in Libraries: an Introduction to Information Retrieval*. 2nd rev. ed. [n.p.] Seminar Press, 1971.
- 日米大學圖書館會議. 第1回…議事錄, 東京: 大學圖書館國際連絡委員會, 1970.

- 日本ドクメンテーション協會. 大學圖書館の諸問題, 第1集, 東京: 同會, 1970.
- Orne, Jerold, ed. *Research Librarianship; Essays in Honor of Robert Downs*. New York: Bowker, 1971.
- Poole, Herbert, ed. *Academic Libraries by the Year 2000; Essays Honoring Jerrold Orne*. New York: Bowker, 1977.
- Rangathan, S.R.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Madras: Madras Library Association, 1957.
- Rawski, Conrad H., ed. *Toward a Theory of Librarianship*. Metuchen, N. J.: Scarecrow Press, 1973.
- Reynolds, Michael M., ed. *Reader in the Academic Library*. Washington, D.C.: Microcard Editions, 1971.
- 柳東烈, 우리나라 大學圖書館行政에 관한 研究, 서울: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7. 未刊行 碩士學位論文.
- Salmon, Stephen R., ed. *Library Automation; a State of the Art Review*.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9.
- Sandhn, Sarbjit S. "The Role of the Subject Specialist in a University Library." *Unesco Bulletin for Librarians*, v. XXIX, no. 2, (Mar.-Apr., 1975), pp. 64-67.
- Stokes, Roy. *Bibliographical Control and Service*. New York: London House & Maxwell, 1965.
- Stueart, Robert D., and Eastlick, John Taylor. *Library Management*.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77.
- Taylor, P.J. *Information Guides; a Survey of Subject Guides to Sources of Information Produced by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British Library, 1978. (The British Library Research & Development Reports, No. 5440)
- Thompson, James. *An Introduction to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2nd ed. rev. Hamden, Conn.: Linnet Books, 1974.
- Wasserman, Paul and Bundy, Mary Lee, ed. *Reader in Library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Microcard Editions, 1968.
- Weisman, Herman M. *Information Systems, Services, and Centers*. New York: Becker and Hayes, 1972.
- Wilkinson, Billy R., ed. *Reader in Undergraduate Libraries*. Englewood, Colo.: Information Handling Services, 1978.

Wilson, Lonis Round, and Tauber, Maurice F. *The University Library; the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Functions of Academic Libraries*.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Wilson, Thomas, and Stephenson, James.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2nd ed. Hamden, Conn.: Archon, 1969.

尹岩重. “大學圖書館 文獻發刊의 現況과 問題點.” [서울大學校] 圖書館報, 第十一卷, (1975), pp. 81~87.

全國 國立大學 圖書館長 會議. 大學圖書館の業務分析.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68.

附錄 1.

大學別 刊行 冊子目録・書誌 一覽, 1981까지

校名	出版 年度	書名	크기	面數(P)	印刷方式
建國大	1969	藏書目録	四六倍	849	필경 등사
	1971	漢籍目録	"	143	" "
	1973	藏書目録, 西洋書篇	"	664	음세트
	"	정기간행물기사책인 1952~1970	"	204	活版
	1976	藏書目録, 2版	"	1,068	孔版 등사
慶熙大	1974	教授著書 및 論文目録	"	110	活版
	1979	" 第二輯	"	215	" "
	1980	耕坡文庫目録	"	162	필경·타자 음세트
高麗大	1966	유엔寄託圖書目録	"	40	타자 등사
	1968	藏書目録, 東洋書 上	菊倍	594	제목스음세트
	"	" " 下	"	575	" "
	"	" 西洋書 上	"	796	" "
	"	" " 下	"	780	" "
	1970	姜鏞訖文庫目録, 第一部	四六倍	177	음세트
	"	유엔寄託圖書館藏書目録	"	246	타자 음세트
	1972	" 追加	"	103	" "
	1973	石洲文庫目録	"	70	活版
	1974	薪菴文庫漢籍目録	"	166	"
	"	海史文庫目録	"	66	"
	1975	景和堂文庫目録	"	138	"
	1976	華山文庫目録	"	203	"
	1979	晚松金完燮文庫目録	"	481	"
1980	貴重圖書目録	"	150	"	
東國大	1966	校內出版物展示目録			
	1967	教授著書展示會目録	菊	28	活版
	1969	楊致光文庫目録	"	518	"
	1980	古書目録	四六倍	650	"
明知大	1979	別置圖書目録	"	133	타자 복사
	"	所藏逐次刊行物綜合目録	"	112	타자 음세트

校名	出版年度	書名	크기	面數(P)	印刷方式
西江大	1976	참고도서해제	四六倍	50	등사
	1978	"	"	50	"
서울대	1954	古圖書展示目錄	菊	81	活版
	"	古圖書展示會 韓國活字印刷本展示目錄	"	22	"
	1956	古圖書目展示會出品圖書解說	"	95	"
	1962	朝鮮圖書解題未收書目	四六倍	234	필경 등사
	1964	奎章閣圖書目錄韓國本集部	"	447	"
	1965	" 史部(一冊)	"	484	"
	"	" " (二冊)	"	518	"
	"	" " (三冊)	"	520	"
	"	" 經·子部	"	405	"
	1966	" 書名索引	"	229	"
	"	일사·가람文庫 古書著者目錄	"	344	"
	"	貴重圖書展示會展示圖書目錄	菊	146	"
	1968	外國學術雜誌綜合目錄	四六倍	77	타자 음세트
	"	Classified Catalog of Occidental Books, v. 2.	"	"	"
	1971	외국학술잡지 색인, 인문사회과학	"	869	"
	"	韓國古地圖展示會出品目錄	菊	79	活版
	"	韓國古地圖解題	"	"	"
	1972	奎章閣圖書中國本總目錄	四六倍	505	제목스 음세트
	"	所藏古文書集眞	橫菊倍	"	"
	1973	一般古圖書目錄	四六倍	441	"
	"	마이크로필름목록	"	35	活版
	1974	雪松文庫目錄	"	91	음 세트
	1975	國立大學校所藏逐次刊行物綜合目錄,	"	242	타자 음세트
	"	I. 歐美編法律文獻索引, 1945~1974	"	724	活版
	1976	開校 30周年 및 奎章閣創設 200周年 紀念 貴重圖書展示會目錄	"	138	"
	1977	國立大學校所藏逐次刊行物綜合目錄, II, 韓國·中國·日本編	"	286	"
1978	想白文庫圖書目錄	"	378	제목스 음세트	
"	法律·經濟古文獻展示會目錄 및	"	49	活版	
"	解題法律文獻索引, 追録分, 1975-1976	"	117	"	
"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제 I 집	"	504	"	
1979	經部·子部 제 II 집 集部 I	"	533	"	

校名	出版年度	書名	크기	面數(P)	印刷方式
서울대	1980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集部2제 Ⅲ집	四六倍	524	活版
	1981	Catalog of the Occidental Books Jan. 1979-Oct, 1980.	"	960	컴퓨터출력용세트
서울여자대	1976	정기간행물목록	"	124	타자용사
성균관대	1966	漢籍藏書目錄 1	"		복사
	1972	博·碩士學位論文著者 및 書名目錄 1956-1971	"		活版
	1973	保存圖書目錄	"		
	1979	外國學術雜誌綜合目錄	"	118	孔版용세트
	"	張翼鳳文庫目錄	"	155	사진植字용세트
"	古書目錄	"	788	活版	
世宗대	1974	장서목록(Ⅰ) 동양서	"	358	필경 등사
	"	" (Ⅱ) 서양서편	"	414	活版
淑明여자대	1961	古書展示目錄	菊	34	活版
	1971	숙대 간행물기사색인, 1955~1970	四六倍	386	
	1973	정기간행물기사색인, 1970	"		용세트
	"	" , 1971	"	560	"
"	1974	" , 1972	"	752	活版
延世대	1954	韓國의 製紙·文字及古印刷文化에 關한 資料展示目錄	菊		필경 등사
	1957	韓國의 板本과 活字本展示目錄彙	"	78	" "
	1966	교수저서 전시회목록	"	142	活版
	1967	貴重圖書展示目錄	"	140	"
	1968	基督教古文獻展示目錄	"	123	"
	1969	정기간행물기사색인, 1967	菊倍	389	타자용세트
	1970	" 1968	"		" "
	1971	" 1969	"		" "
	1972	" 1970	"	436	" "
	1973	" 1971	"	578	" "
"	1977	古書目錄	四六倍	796	活版
梨花女子대	1980	소장 정기간행물목록	菊倍	333	타자 등사

校名	出版年度	書名	크기	面數(P)	印刷式方
韓國 外國語大	1968	東宙文庫目錄			
	1979	外國語辭典(전시목록)	菊	92	타자 음세트
	1979	源昌文庫目錄	四六倍	91	사진植字음세트
漢陽大	1980	장서목록, 1975~1979	"	500	" " "

附錄 2.

설 문 지 (抄)

1. 도서관의 정식 명칭
2. 1979년 12월 31일 현재의 총 장서수

동양서	서양서	고서		합계

19. 귀 도서관에서 간행한 단행본의 책자목록(冊子目錄)이 있으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인쇄방식”은(활판인쇄, 공판인쇄, 타자동사, 음세트인쇄, 필경 등사, 사진식자, 청사진, 복사, 전산기출력 등)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서명·판차	간행연도	면수	크기	인쇄방식
1					
2					
3					
3					
4					
5					
6					
7					
8					

40. 귀 도서관에서는 앞으로 모든 자료 정리업무를 전산화(자동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네 _____, 아니요 _____.

41. 열람용목록의 전산화(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래의 방법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요. 필요한 것만 ○표시 하십시오.

- <답> _____ ㉠ 목록카드의 자동배열과 검색
 _____ ㉡ 자동출력에 의한 인쇄
 _____ ㉢ 단말장치상의 전지와 복사
 _____ ㉣ 책자목록의 계속 발간
 _____ ㉤ 기타(기입바람) _____

42. 귀 도서관에서는 주제검색·주제목록의 전산화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신지요. ○표시를

- <답> _____ ㉠ 지금 행하고 있다.
 _____ ㉡ 앞으로 행할 계획이다.
 _____ ㉢ 전혀 계획이 없다.
 _____ ㉣ 할 필요가 없다.
 _____ ㉤ 기타(기입바람) _____

43. 주제검색이나 주제목록의 전산화가 이루어진다면, 주제의 표시방법은 어떤방법이 좋은지요, 아래에서 하나만 ○표시 하십시오.

- <답> _____ ㉠ 분류기호
 _____ ㉡ 주제명표목
 _____ ㉢ 서명의 중요어(Keyward)
 _____ ㉣ 기타(기입바람)

44. 도서관에 따라서는 책의 내용목차(차례)를 분석하여 주제검색을 행하도록 준비한 곳도 있습니다. 귀 도서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 네 _____, 아니요 _____, 준비중 _____

45. 귀 도서관에 주제별 전문사서가 근무하고 있다면, 아래에 그 명단을 알

려주십시오.

여기에서 주제별 전문사서란 사서자격(증)소지자로서, 특정 전공의 학사·석사·박사학위 소유자를 의미합니다.(단 도서관학·정보학·서지학은 제외)

성 명	학 위 명	전 공 분 야	근 무 부 서 명
(부족하면 별지에)			

46. 귀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주제별 정보접근을 위하여, 아래의 방법중 어떤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해당되는 것은 √하여 주십시오)

- <답> ㉠ 주제별 전문사서를 두고 도와주고 있다.
 ㉡ 주제별 열람실을 두고 이용하게 한다.
 ㉢ 주제별 참고업무를 행하고 있다.
 ㉣ 주제별 서지를 만들어 두고 있다.
 ㉤ 주제별 신착자료속보를 발간하고 있다.
 ㉥ 주제별 잡지기사색인을 만들어 두고 있다.
 ㉦ 주제별 학술논문색인을 만들어 두고 있다.
 ㉧ 주제별로 잡지 목차를 복사·제공한다.
 ㉨ 온 라인 시설로 주제별 검색을 하고 있다.
 ㉩ 주제 전문가와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두고 있다.
 ㉪ 주제별 전문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 기타 ① _____

② _____

47. 귀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2차정보자료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를

- 〈답〉 ㉠ 서지 예 _____, 아니요 _____
- ㉡ 색인류(책자) 예 _____, 아니요 _____
- ㉢ 색인지(잡지) 예 _____, 아니요 _____
- ㉣ 초록류(책자) 예 _____, 아니요 _____
- ㉤ 초록지(잡지) 예 _____, 아니요 _____
- ㉥ 종합목록 예 _____, 아니요 _____
- ㉦ 문헌안내서 예 _____, 아니요 _____
- ㉧ 참고도서해제 예 _____, 아니요 _____

48. 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모든 여러가지 주제의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

㉠ 이용자들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귀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 네 _____, 아니요 _____

㉡ 이용자들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답〉 네 _____, 아니요 _____

㉢ 이용자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도내에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답〉 네 _____, 아니요 _____

49. 귀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한, 주제별로 검색이 가능한 최신 정보주지 (Carrent Awareness)의 계속 간행물이 있으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신착자료속보) 중단된 것도 필요합니다.

ㄱ	간행물 명		
ㄴ	창간 년월		
ㄷ	간행 연도		
ㄹ	현재 계속성 여부		
ㅁ	배열의 순위		

ㄴ	편찬담당 부서명		
ㄷ	배포 대상 범위		
○	기타(서지적인 변동, 등)		

50. 귀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관심 주제를 등록하여 봉사하는 S.D.I 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부분만이라도 좋습니다. ○표시를

〈답〉 네 _____, 아니요 _____

51. 귀 도서관에서는 주제별로 나누어서 편찬하는 종합목록의 계획이 있다면 참가하시겠습니까.

〈답〉 네 _____, 아니요 _____

52. 주제별 종합목록이 간행된다면, 귀 도서관에 이 책을 비치하시겠습니까. (한 예로 “도서관학”)

〈답〉 네 _____, 아니요 _____

53. 범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주제별의 문헌안내서가 있다면, 귀 도서관의 참고·정보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답〉 네 _____, 아니요 _____

※ 이 질문지에 답하신데 대하여 삼가 감사드립니다. 문교부의 승인이 나는 데로 보고서를 해답자에게 따로 1부 더 우송코자하오니 주소·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성 명 :

주 소 :

Bibliographic and Subject Information
Activities of the Korean University
Libraries

Kim, Byeong-Joo*

[Abstract]

This study is a first part of the survey on the bibliographic and subject information activities of Korean libraries.

The 35 University libraries which held over 10,000 volumes of their collections and located in Seoul City area, are surveyed through the questionnaires.

The 92 kinds of published bibliographies and catalogs are analysed. Subject-bibliographic activitie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are analysed by the answers of 9 items of the questionnaire.

The librarians' opinions on the automation of bibliographic activities are also analysed.

* Sangmyong Womens' Teachers College. Dept. of Library Science